

연구소 소식

육아정책연구소 정책토론회 개최 - 보육·유아교육 정책, 새 정부에 바란다 -

육아정책연구소는 2022년 4월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김미애 국회의원 의원실과 함께 「보육·유아교육 정책, 새 정부에 바란다」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하였다.

본 정책토론회는 박상희 육아정책연구소 소장과 김미애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환영사를 하고,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권성동 원내대표, 나성웅 한국보육진흥원 원장이 축하를 전하였다. 이 외에 김기현 前원내대표, 송언석 의원, 최재형 의원, 전주혜 의원, 김웅 의원, 김영식 의원, 김병욱 의원, 양금희 의원, 배준영 의원, 정경희 의원, 윤상현 의원, 한무경 의원, 안병길 의원, 조명희 의원 등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다.

윤석열 대통령(당시 대통령 당선인)의 보육·유아교육 정책 분야 공약에 대해 이완정 한국아동학회 회장, 정정희 한국유아교육학회 회장, 오필순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 원장, 조용남 한국보육진흥원 교직원지원국 국장, 이증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 위성순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회장, 유보영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과장, 유희승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과장, 연구소 최은영 연구위원이 토론에 참여하였다.

육아정책연구소는 금번 정책토론회 이후 유아교육·보육 정책 관련 주제로 연내에 육아정책 심포지엄을 3회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어린이날 100주년 맞이 기념 학술행사 개최

육아정책연구소는 한국보육진흥원과 공동주최로 어린이날 제정 100주년 기념 “아이가 행복한 미래를 말하다”를 주제로 5월 3일(화) 14시에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기념 학술행사를 개최하였다. 본 학술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진행되었는데, 1부에서는 사회 저명인사의 영상 및 서면 축사와 기조강연이 진행되었다.

1부 기조강연은 정신건강의학과 하지현 교수(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가 “어떻게 아이들 마음을 파악하고 미래를 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하였다. 2부에서는 전문가와 학부모의 대담방식으로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겪는 생생한 육아에 대해 허심 탄회하게 이야기하면서 현재 육아정책의 개선점, 바람직한 육아정책 등을 모색하였다.



제1-3차 KICCE 유아교육·보육 통합 특별포럼 개최

육아정책연구소는 2022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요청으로 수행 중인 ‘유아교육·보육 통합을 위한 단계적 추진 방안’ 연구 수행의 일환으로 ‘새정부 유아교육·보육 통합의 쟁점과 과제’에 관한 3차례 특별포럼을 개최하였다.

KICCE 유아교육·보육 통합 특별포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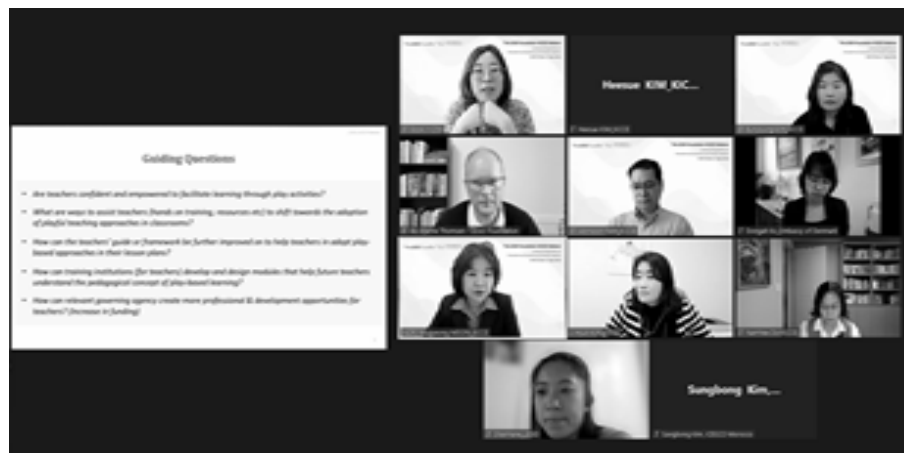
구분	일시	발표주제	행사사진
1차 포럼	4월 29일(금)	• 새정부 유아교육·보육 통합의 쟁점 및 실행방안 • 유아교육·보육 거버넌스 개편방안 • 유아교육·보육 법령정비 및 통합 방안	
2차 포럼	5월 2일(월)	• 유아교육·보육 교사의 자격 및 양성체계 통합의 쟁점	
3차 포럼	5월 13일(금)	• 유아교육·보육 교사 처우개선의 쟁점 • 유아교육·보육 통합 재정확보 방안	

본 포럼은 그 간 논의되었던 유아교육·보육 통합 방안을 공유하고, 쟁점에 관해 진일 보완 논의를 펼치는 장으로 마련되었으며, 포럼을 통해 수렴된 각계각층의 의견들을 바탕으로 보다 진전된 유보통합 실행 방안을 모색하였다.

레고재단과의 제2차 국제웨비나 개최

육아정책연구소는 2022년 4월 15일(금) 레고재단(The LEGO Foundation)과 제2차 국제웨비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국제 웨비나 주제는 「Learning through Play II(놀이를 통한 학습): Strengthening educators and teachers capacity(교사 역량 강화)」이다.

첫 번째 주제발표는 육아정책연구소 김은영 선임연구위원이 'Teacher Competency in the Implementation of a Play-based Curriculum(놀이 기반 교육과정 실행에서의 교사 역량)'을, 이어서 박원순 연구위원이 'i-누리' 포털의 전반적인 구성과 활용 실태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였다. 두 번째 주제발표는 Bo Stjerne Thomsen 박사의 'Shifting Mindsets and Play Facilitation in Classrooms(마인드셋의 전환과 교실에서의 놀이 촉진)'를 발표하였으며, 토론은 육아정책연구소 문무경 국제교류데이터정책연구실장의 진행 하에 이루어졌다.



2022 한국다문화교육학회 국제학술대회: KICCE 세션 개최

육아정책연구소와 한국다문화교육학회는 2022년 5월 20일(금) 오후 3시, 2022년 한국다문화교육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KICCE Panel Session을 공동으로 구성하여 비대면으로 개최하였다.

본 학술대회에서는 박상희 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호주의 Joce Nuttall 교수(Australian Catholic University)가 'Policies and practice to support cultural and linguistic diversity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in Australia'에 대한 발표를, 일본의 Yuko Hayashi 교수(Kobe Shoin Women's University)가 'The current situation

of ECEC for children from diverse cultural backgrounds in Japan: From the perspective of children's language development'에 대한 발표를, 마지막으로 육아 정책연구소 박은정 부연구위원과 문무경 선임연구위원은 'Policy measures to empower multicultural parents in supporting their young children's bilingual education'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토론자로 Kevin Kien Hoa Chung 교수(The Education University of Hong Kong), Chunghee Chung 교수(Kyungpook National University)가 참여하여 각국의 다문화 교육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Contents

- 1. Current status of people with diverse cultural backgrounds in Japan
- 2. Policy Trends in multicultural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in Japan
- 3. Current status of ECEC for children with diverse cultural backgrounds in Japan
- 4. Case of Kobe City




Cultural and linguistic diversity

Australia

- 21% speak a language other than English
- 23% of Australians were born overseas
- 2018 Census language spoken by a person at home: English only - 72.7%, Mandarin - 2.5%, Arabic - 1.4%, Cantonese - 1.2%, and Vietnamese - 1.2%

Korea

- The ethnic background of their foreign-born parents includes Vietnamese (29.1%), Chinese with non-Korean ethnic background (22.3%), Filipino (11.4%), Chinese with Korean ethnic background (10.3%), and Japanese (8.5%) from Ministry of Education (2013-2018)

Japan

- Chinese (29.8%), Thai (1.5%), Vietnamese (12.9%), and Korean (11.3%) Immigration Services Agency, 2020

Results

Bilingual use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When your child starts speaking Kore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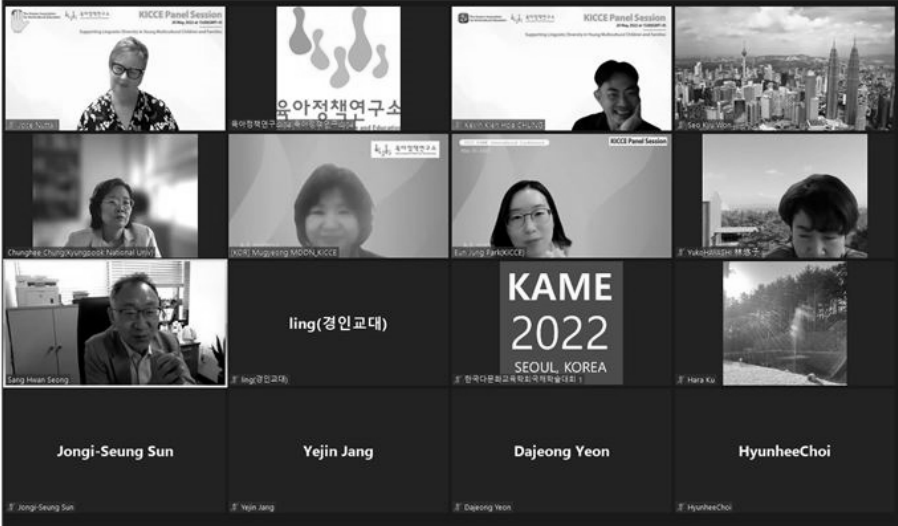
	Before 24 months of age		2-3 years old		3-4 years old		4-5 years old		Unable to speak in Korean		Total	
	Freq.	Percent	Freq.	Percent	Freq.	Percent	Freq.	Percent	Freq.	Percent	Freq.	Percent
Everyday language of Children												
Only Korean	40	23.8	88	41.1	28	16.7	7	4.2	2	1.2	22	13.1
Mainly Korean	65	39.7	107	50.7	54	30.5	18	9.9	8	5.0	11	6.2
Bilingual	17	10.0	31	14.6	14	8.4	4	2.4	2	1.2	0	0.0
Other	4	2.4	12	5.7	8	4.7	2	1.1	1	0.6	0	0.0
N	168		213		166		71		11		33	
p												

*p < .05

Analysis of early childhood policy texts in relation to culture and diversity

Nuttall, J., Grieshaber, S., Lim, S., Yun, E., Oh, J., Ahn, H., Sun, E. W., Yang, W., & Kim, S. (2021). Workforce diversity and quality improvement policie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in East Asia. *Early Years: An International Research Journal*. <https://doi.org/10.1080/09575734.2021.1888079>

- 'Culture' is inadequately defined
- The texts reflect a normative and paternalistic stance on the part of dominant cultures; diverse children and families are 'others' who have additional needs
- There is systemic omission of teachers' cultural and linguistic expertise in a way that is not just specific to migrant educators



정책포럼

〈공간과 스마트기술로 풀어보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안전〉 개최

육아정책연구소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과제 '어린이집과 유치원 장애위험 영유아 조기발견 및 발달지원 종합 대책 방안(I): 실태조사 및 조기선별 도구 개발' 연구의 일환으로 2022년 6월 7일(화), '공간과 스마트기술로 풀어보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안전'을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본 연구소의 강은진 선임연구위원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안전에 대한 교사와 부모의 동상이몽'을 주제로 발표하고, 성균관대학교 성지현 교수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안전환경지표 개발과 사례분석'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손아영 선임연구위원이 '스마트기술의 도입을 통해 부모-교사 소통과 안전감지 확대'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주제발표에 이어 본 연구소의 최윤경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고 김아름 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강희은 보육담당관(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최정운 교수(인천대학교 도시건축학부), 어영정 교수(연세대학교 글로벌인재학부)의 토론이 이루어졌다.

